

광주시-5개 자치구 지역현안 상생협력

지방분권 대비·소통 통해 지역발전 에너지 결집
상생회의 연2차례 정례화...인사교류 활성화도

민선 7기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민권의 증진, 주민자치역량 강화, 현안 해결, 협력과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상생회의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지속적인 상생 안건을 발굴하는 한편 시·구 담당 국장들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4일 오전 광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시와 자치구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통합된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다움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구정의 역할을 결집해 달라"며 "앞으로 각종 평가와 교부

금 등 예산 지원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10월 중에 지자체 최초로 진행될 첨단 인공지능을 이용한 일자리 박람회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 지난 8월 27일과 31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남구 주월동 일대 주택·상가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향후 예방을 위해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주민참여와 소통 확대 및 지방행정 혁신, 지역 현안 및 상생·협력 과제 발굴과 해결,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고 달라진 자치구 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소통행정을 위한 '제1회 광주광역시·자치구 상생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5개 구청장과 대 시민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 시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사 여건 등을 반영한 '인사교류 협약'도 체결했다.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 1:1 상호 교류를 대전제로 부구청장(3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자체승진 등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하고 대신 자

치구 4급 또는 5급 1명이 서로 전입하는데 합의했다.

또 광주시 5건과 자치구 5건(구청별 1건) 등 10건의 상호 공동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풍 '제비' 일본 남서부 강타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남서부 지역을 상륙한 4일 고치(高知)현 아키(安藝)시의 항구 앞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 실국 참여 일자리 로드맵 수립 착수

현장전문가 참여 TF 구성

광주시가 전 실국이 참여하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4일 "민선7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집행-평가-보상의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실국이 참여하기 위해 자치안전, 산업육성, 문화관광, 복지건강, 교통도시, 환경생태, 청년, 여성, 창

업, 기업지원, 투자유치, 사회적 경제, 고용서비스 등 13개의 TF를 구성했다.

시는 탁상 중심의 공급자 시각을 탈피해 현장과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에는 현장전문가를 반드시 포

함시킬 방침이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100일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 후 정기적으로 로드맵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며 "단순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계획대로 설립해야”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4일 제32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를 대통령 공약대로 설립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출신 이민준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대표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가적 현안사업 중 하나"라며 "혁신도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의지를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에너지 밸리 성공 등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지역대학의 반대, 입지 경쟁, 재정부족 등을 핑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립 시기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기관 추진협의를 구성하고 한전 공대 설립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조만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등으로 보내진다.

한편, 한전은 오는 10일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용역 과정에서 규모 축소, 2022년 3월을 목표로 했던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한전은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지킨다

전남도의회 특별위 구성

전남도의회가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32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여수·1·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 해양생태계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간담회, 현지활동 등을 이어가고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광양만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었으나, 여수·광양 등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뒤로는 어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광양만 인근 산단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우려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남도의회는 특히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변화 실태와 주요 오염원을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을 지키고 수산 자원을 확대하면서 대기 질도 개선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내홍' 도시철도공사 진상조사

광주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 오는 13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불거진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채용 비리와 성희롱, 허위 분양

연루 의혹과 인사 갈등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독기관인 시에 강력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관리감독 부서인 시 교통건설국도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경영평가 컨설팅·워크숍'

광주시는 4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평가 컨설팅 및 워크숍'을 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경영평가 컨설팅 및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출연기관과 지원부서의 의견을 들었다. 또 내년 평가지표 설정 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가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

관이 평가를 수행해왔다. 이런 평가방식은 평가 대상기관과 관련 부서, 평가 수행기관 간 소통 부재와 지도·감독부서의 관심과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평가결과 사전보고 ▲대상기관·관련부서·평가기관이 함께하는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최종보고회 개최 등 3단계의 견주수립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